

전남도,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소득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1인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4인 100만원 지원

도, 코로나19 감염 예방 위해 비대면 온라인 신청 당부

전남도는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 프로그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 위기가구를 발굴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위기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며, 보유

재산은 시 지역의 경우 3억5000만원, 군 단위는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지난달 9일자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다만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의 대상은 기초생활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절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급여,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등을 지원받은 가구가 해당된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며, 출생연도 끝자리를 적용한 ‘요일제’로 운영한다.

온라인으로는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인 ‘복지로’ 누리집에서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현장방문 신청은 19일부터 30일

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 시 원전정수영수증과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지급은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 이후부터 12월 말까지 신청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강영구 전남도 위기가구지원 TF단장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김상훈 회장 “장애인 가족 화합·발전위해 봉사할 것”

장애인부모회 광주광역시지회 임의회장 선출

한국장애인부모회 광주광역시지회는 10월 7일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86 3층에서 임시총회를 개최, 신임회장으로 김상훈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했다.

이 날 총회에서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를 선출하는 자리로 한국장애인부모회 광주광역시지회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소영)를 구성, 후보등록을 받아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회장의 경우 단독으로 출마한 김상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97%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회장에 선출됐으며 이어 최종미부회장, 한정숙부회장, 엄경미감사, 유경화감사, 정수연, 정경진, 조혜영, 백은순, 박향숙, 조영미, 조영희, 임미숙 이사를 각각 선출했다.

신임 김상훈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부위원장, 광주 전남발전연구원 총무팀장, 아시아문화개발원 연구원등을 역임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발전을 위한 노력 ▲장애인의 생존권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식개선과 환경문화의 변화를 위해 노력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 ▲본 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을 내세웠다.

김상훈 신임 회장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뛰겠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고 회원들의 복지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장애인부모회 광주광역시지회는 1994년 10월 21일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자녀들이 사회인으로 정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사회를 건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부모들의 힘으로 해결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고자 장애인 부모들의 뜻을 모아 설립한 비영리민간단체이다. 김미희기자

강진군 “임신부 건강관리비 지원받으세요”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 건강한 출산 위해 1인당 20만 원 지급

강진군은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인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건강관리비 2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전라남도 제2차 긴급 민생지원대책 발표일인 9월 24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이다.

1차 신청 기간인 10월 6일부터 8일까지는 보건소 등록 임신부만 신청 가능하고, 2차 신청 기간인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보건소 미등록 임신부도 신청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임

신확인서(또는 산모수첩), 임신부 명의 통장사본으로 방문 접수, 등기우편,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추가로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 자료를 검토한 후 10월 14일에 1차 지급하고 22일에 2차 지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보건소 방문보건팀(061-430-35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임신부 건강관리



비 지원이 코로나 장기화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임신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강진군 청자로타리클럽, 저소득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배 및 장판 교체작업 자원봉사

지난 8일 강진군 청자로타리클럽 회원 10여 명이 작전면 저소득 가정을 방문해 방과 부엌의 도배·장판 교체작업을 지원했다.

대상 가구는 가구주의 건강이 좋지 않아 집안일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집 지붕에서 누수가 심해 주거하는 공간에 곰팡이가 심각한 상태였다.

청자로타리클럽에서는 이 같은 소식을 듣고 바로 긴급출동대를 모집해 회원 10여 명이 8일 오전 9시부터 집안의 물건을 신속하게 꺼내고 청소를 시작했다. 도배 및 장판을 교체하고 사용이 위험할 정도로 낡은 가스레인지까지 즉시 교체 지원했다. 봉사 지원을 받은 가정에서는 시원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감추지 못했다.

나동열 청자로타리클럽회장은 “코로나19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사람이 비우면 자연은 채웁니다

사람의 손길이 멈춘 자리에 비가 날아들고 새들이 지저귀니.
사람의 발길이 잦아든 자리에 푸른 열매가 자라고 붉은 꽃이 필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푸른 세상을 꿈꿉니다.